

교육격차 실증연구의 체계적 분석*

박 주 호** · 백 중 면***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현재까지 전문학술지에 의해 논의된 인지적 측면, 즉 학업성취 면에서 교육격차 실증연구를 종합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전문학술지검색 사이트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통해서 검색 및 선별한 총 46편의 교육격차 실증 연구논문 이었다.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째, 교육격차는 학술지를 준거로 8개 세부 교육학 전공분야에 의해 접근되었고, 그 중 다문화 및 교육사회학(11편)과 일반교육학(15편) 분야 학술지에 의해 주도적으로 논의되어 왔었다. 둘째, 교육격차는 사교육 참여,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거주 지역, 부모의 자녀교육 관심과 관여, 학교특성 등 8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셋째, 교육격차의 가장 결정적 원인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고, 지역 간 야기된 교육격차 경우도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주원인으로 작용해서 생겨났으며, 초중등학교 때 보다는 고등학교시기에 우수학생이 도시로 이동함으로 인해서 주로 그 격차가 뚜렷하게 발생하였다. 넷째, 전반적으로 교육격차에 학교특성 차이에 의한 효과는 미약 하지만, 구체적으로 학교의 교육풍토나 사회적 자본 차이가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한 교육격차를 감소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주제어: 교육격차, 학업성취,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거주지 차이

논문 접수: 2019/01/17 수정본 접수: 2019/03/30 게재 승인: 2019/03/31

* 본 논문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과제 (NRF-2015S1A5B8A02061908)의 결과 보고서를 요약하고 일부를 수정 보완하였음.

**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한국교통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교신저자: baikjm@ut.ac.kr)

I. 서 론

지식·정보화 사회가 표 3과 같이 1990년 중반 이후 우리사회는 심화되고 있는 교육격차의 해소를 위해 교육 소외계층 지원 중심 교육복지 확대를 교육 및 사회정책 분야의 핵심적 과제로 보았다. 특히, 교육격차가 실제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우리사회에서 집중 조명을 받은 것은 교육복지국가(edutopia) 실현이라는 1995년 5·31 교육개혁 과제 추진에서 비롯되었다(박주호, 2014). 이런 맥락과 관련해서 김민희(2017)는 교육격차 해소의 경우 교육정책이나 교육실제에서 교육복지 확대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언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격차는 주로 가정의 소득격차나, 지역의 교육여건 격차, 다문화가정의 열악한 교육여건 등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파생되고, 그 격차가 궁극적으로 사회계층이동을 막는 심각한 사회문제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선진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해소되어야 할 문제이다(박주호, 2014). 우리가 교육격차 해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와 관련해서 김경근(2005)은 교육격차가 낮은 사회적 지위를 파생시키고 계층고착화, 즉 가난의 대물림으로 인한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기 때문임을 강조한다.

지금까지 학문적으로 교육격차를 확인하고 접근하는데 있어 핵심은 학업성취 결과 분석을 위주로 접근해 왔다(김경근, 2005; 김민희, 2017). 학교교육 결과인 학생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경우 다양한 요인(예, 학생 개인변인, 가정변인, 학교변인, 교사변인, 교수-학습변인)으로 구분해서 그 효과가 분석되고 상당히 많은 결과가 축적되어 왔다(예, 학생 개인특성 관련: 김양분, 김난옥, 2015; 변수용, 김경근, 2008; 장희원, 김경근, 2015, 부모 또는 가정배경 관련: 박수란, 2006; 김경근, 2005; 김선숙, 고미선, 2007; 김현진, 2007; 임현정, 2010, 부모자녀관계 또는 부모양육태도 관련: 류방란, 송혜정, 2010; 조희원, 박성연, 지연경, 2011; 표경선, 안도희, 2006, 학교 배경 또는 설립 유형 등 학교요인 관련: 김양분 외, 2010; 김희삼, 2012; 변수용, 김경근, 2011, 교사요인 관련: 김경식, 이현철, 2010; 김종백, 김준엽, 2014). 이에 더하여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효과에 대한 다수의 메타분석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예, 구병두, 김수옥, 2014; 오성삼, 구병두, 1999; 엄정영, 김영길, 전옥례, 2015; 이희숙, 정제영, 선미숙, 2016). 하지만, 이들 학업성취에 미친 영향 요인 연구들의 경우, 구체적으로 교육격차가 어떻게 또는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를 핵심적 목적으로 하고 있기보다는, 단지 학업성취에 어떠한 요인이 어떻게 어느 정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말하자면, 이들 선행연구는 학업성취에 특정 투입 또는 통제 변인(예, 부모소득, 부모학력, 거주 지역 등)이 미친 효과를 기반으로 교육격차 발생 정도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부수적, 단편적으로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최근 우리사회의 핵심적 교육문제인 교육격차의 경우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분석된 연구 사례가 부재했음을 알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교육격차를 접근한 다수 선행연구는 부모의 소득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업성취 또는 대학진학률에 있어 그 격차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구인회, 박현선, 정익중, 2006; 김광혁, 2011; 김정근, 2005; 김영철, 2011). 또한 일부 선행연구는 지역 간 교육격차 문제가 농촌지역 우수학생의 도시 이동을 가속화시키고 도시와 농촌 간에 교육양극화와 사회양극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강조해 왔다(김정근, 2005; 성기선 외, 2009; 이두휴, 2011). 이외에 2000년 중반 이후 새롭게 등장한 교육격차의 한 원인으로서 다문화가정 배경이 논의되어 왔다. 실제 다문화 가정의 자녀 경우, 학령기 이후 또래 아이들보다 언어 발달 지체와 문화 부적응으로 인해 학교부적응과 기초학력 부진을 초래하는 등 교육격차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김정원 외, 2008; 오성배, 2005).

최근까지 수행된 선행연구들을 보면, 교육격차가 다양한 원인(예, 가정의 소득차이, 부모의 사회 경제적 배경, 지역 차이, 다문화 가정 배경 등)에 의해서 야기되고, 그 격차가 주로 학업성취도 측면에서 그 격차를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이들 선행연구들의 경우, 특정 학교 급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자료(예, PISA데이터, 한국교육종단연구 자료, 한국교육고용패널에 의한 수학생력시험 점수, 전국학업성취도 자료 등)만을 분석하였고, 그리고 종단분석보다는 횡단면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특히, 교육격차의 경우 유사하지만 다른 개념(학업성취도 차이, 교육 불평등, 학업성취도 격차 등)하에서 접근되기도 하고, 세부 전공영역(예, 교육사회학, 교육정책 및 경제, 교육심리, 사회복지 등)에 따라 상이한 논의의 초점을 보여 왔으며, 분석 모형이나 방법에 따라 그 격차 크기가 다른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교육격차를 발생시키는 데 얼마나 다양한 요인(학생 개인적 특성, 가정배경 및 지역 차이, 학교 내 사회문화적 환경 차이, 학교운영 여건 및 교원의 질 차이 등)이 작용했는지, 개념적으로 교육격차가 다의적 의미를 내포(김민희, 2017)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포괄적으로 그 격차를 접근했는가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교육격차 관련 체계적 문헌 분석(systemic analysis) 차원에서 2000년 이후 최근까지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학업성취 차원의 교육격차 실증연구를 종합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격차가 어떠한 전공영역에서 논의되어 왔고, 교육격차의 원인은 무엇이었으며, 학교급 별로는 어떻게 교육격차가 발생하였고, 무슨 자료를 토대로 교육격차가 분석되고, 그 격차를 입증하기 위해 사용한 분석모형이나 방법은 무엇이었으며, 실제 교육격차는 어느 정도 입증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우선, 본 연구는 교육격차의 개념적 의미와 범위, 교육격차를 발생시키는 원인에 관한 이론적 관점과 교육격차 유형을 이론적 배경에서 탐색하였다. 다음으로 교육격차 또는 그 의미를 내포한 개념적 핵심어(예, 학력격차, 학업성취도 격차)를 가지고 접근한 선행 연구들을

체계적 분석을 통해 정리하였고, 그 결과를 논의하였다. 이러한 체계적인 문헌분석 연구는 현재 우리사회에서 심화되어 가고 있는 교육격차 이슈에 대한 교육학적 의미를 보다 심층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하는데 그 이론적 시사점이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교육정책이나 학교교육 개혁 차원에서 교육격차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그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심층적 근거를 제공하는데 실제적 의미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교육격차의 개념적 의미와 범위

교육격차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소 상이한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박현정, 길혜지, 2013). 용어상으로 볼 때 교육격차는 학교환경의 차이, 지역 환경의 차이, 사교육을 받는 정도의 차이, 학부모 지원 차이, 학업성취 차이 등 교육과 관련된 여러 형태의 차이를 담고 있다(김양분 외, 2010). 실제 교육연구에서도 교육격차는 개념적으로 유사한 여러 용어를 통해서 접근 되어 왔다. 예를 들어 교육격차는 표면적 어휘상으로 보면 상이한 학력격차(예, 이재경, 김양분, 신혜진, 2016; 임성택, 강승호, 2003), 학업성취도 격차(예, 정충대, 2017), 학업성취 격차(예, 백병부, 김정숙, 2014), 학력차이(예, 김성숙 외, 2011) 등으로 접근 되었다. 가장 최근에 김민희(2017)는 교육격차의 개념과 관련해서 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의 경우 교육복지, 교육정의, 교육안전망이라는 용어와 유사하게 사용되었고, 그 격차를 감소 또는 제거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교육양극화, 교육소외, 또는 교육불평등 개념과 혼용해서 사용해 왔다는 점을 지적한다. 교육격차와 유사 어휘들 간에 구체적인 의미 차이는 그 개념에 가치(value)가 내포되어 있느냐 여부에 따라 구분되기도 한다. 즉, 교육격차는 단순히 교육기회 및 결과의 차이에 초점을 둔 가치중립적이고 현상적 개념인 반면, 교육불평등은 교육기회와 결과에 있어 자원 배분 정도라는 가치와 이념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김민희, 2017; 김병성, 2003).

실제 사용된 어휘나 그 다의적 의미를 떠나서 교육격차는 사회경제적 양극화 심화와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 가능성이 어려워진 최근 사회변화와 시대상황 하에 교육 및 사회정책의 가장 핵심적 과제로서 다루어져 왔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시대맥락 차원에서 볼 때, 교육격차는 학력격차 또는 교육결과 격차로서 집단 간에 나타난 교육성과 불균형의 의미(김양분 외, 2010)를 특징적으로 함유하고 있다. 실증연구에서도 교육격차에 관한 논의가 주로 인지적 측면의 교육결과 격차인 학업성취 격차에 집중되어 왔다(김경근, 2005). 특히, 교육의 결과인 학업성취도 차원에서 집단간 교육격차의 경우, 교육에서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에 의한 격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지(어디서 출생했느냐?), 가정배경(부모가

누구나?) 또는 가구 소득 등 귀속적 요인이 학업성취도에 작용해서 발생한 격차를 의미한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교육격차를 인지적 측면에서 교육결과인 학업성취 격차나 학력차이에 집중 해 온 것이 사실 이었다. 그 이유는 교육격차가 교육기회의 격차, 교육이 이루어지는 조건과 과정에서의 격차, 교육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의 격차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지만, 교육 기회 및 여건의 격차도 궁극적으로는 교육결과의 격차를 야기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교육격차에 관한 논의는 주로 결과의 격차, 즉 학업성취 격차에 집중되어온 것이다 (김경근, 2005; 박현정, 길혜지, 2013; 이해영, 2004).

2. 교육격차 발생에 대한 이론적 관점

가. 가정의 인적자본투자 관점

인적자본이란 인간에게 축적된 지식, 기술, 전문성 등을 의미한다(Schultz, 1961). 이러한 인적 자본은 주로 학습경험에 의해 사후적으로 형성되며, 대표적인 인적자본 투자의 형태는 학교교육에 대한 투자이다. 실제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증대는 교육수준을 높이고, 그 결과 개인의 소득 및 경제성장의 원천을 이끈다. 많은 실증연구가 이러한 인적자본의 투자의 실효성을 입증 하였다. 즉, 실증적으로 교육 연한(year of schooling)의 증가가 노동시장에서 개인의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해 주고 있다(박주호, 2014).

특히,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미래 생산성 증대를 위한 교육투자, 즉 학업성취를 향상시키기 위해 인적자본을 투자한다. 학령기 아동의 인적자본 투자는 주로 부모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 투자비용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Becker & Tomes, 1986).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인적자본 투자 관점에 따르면,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부모는 아동의 교육이나 양육에 비용을 투자하기보다, 일상적인 생활비에 대한 상대적 가치를 더 크게 고려하여 아동에 대한 지원을 결여하거나 감소시키고, 그 결과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인지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온다는 사실이다(Eamon, 2002; Guo & Harris, 2000). 이는 가족의 재정상태가 어려운 경우, 부모는 생활비에 비해 자녀의 교육에 대한 투자를 상대적으로 덜 중시하게 되어, 자녀에 대한 낮은 인적자본 투자를 야기하고 그 결과 자녀의 낮은 학업성취를 발생시킨다는 견해이다(Becker & Tomes, 1986). 실제 우리나라의 선행 연구도 가족소득이 아동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저소득층과 빈곤층에서 보다 크고,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그 자녀의 학업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더 낮다는 사실을 보고 하였다(구인회, 박현선, 정익중, 2006; 김미숙, 배화옥, 2007)

나. 가구소득에 의한 가족과정 모델 관점

가구 소득에 의해 야기되는 가족과정 모델의 경우, 인적자본투자 관점과는 대조적으로 가정의 심리적 과정을 통해서 아동 발달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견해를 설명한다 (Conger, Conger, & Elder, 1997). 즉, 가정의 경제적 빈곤이나 낮은 소득의 상황은 해당 부모의 정서적 복지 상태나 자녀와의 상호작용 관계와 같은 비 금전적 능력을 떨어뜨리고, 그 결과 자녀의 인지적 또는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는 논리이다(Yeung, Linver, & Brooks-Gunn, 2002). 특히, Yeung과 그의 동료들(2002)은 소득에 의한 가족과정 모델이론을 가족스트레스 관점으로 지칭하고 설명한다. 그들에 따르면, 가정의 빈곤 상황은 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를 증가시켜서, 부모의 심리적 상태나 상호관계 등 부모의 생활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 결과 부모의 자녀관계나 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고, 중국에는 그 자녀의 심리 정서 발달이나 학업성취에 부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견해이다.

다. 사회적/문화적 자본 관점

사회자본 개념은 다양한 수준에서 제도화된 지속적 관계망 속에서 상호인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자원의 총합(Bourdieu, 1986), 사회구조 내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 및 촉진하는 특징(Coleman, 1988), 또는 협력적 행위를 촉진시켜 사회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신뢰 및 연결망 등의 사회조직의 속성(Putnam, Leonard, & Nanetti, 2000)을 포함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 자본을 획득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백병부, 김정숙, 2014).

사회적 자본 개념을 학교조직에 적용하는 경우, 학교 구성원들의 관계망 및 규범을 통해 전달되는 기대와 관심과 같은 무형의 자원으로 정의된다(이재훈, 김경근, 2007). 특히, 학교 내 사회적 자본 효과를 학생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로 보고, 학교 구성원들의 관계, 학교의 규범적 구조, 공동체적 학교 구조, 가정 및 지역사회와 연계라는 측면으로 구분해서 그 효과를 탐색하는 경우도 있다(Lee & Croninger, 1996). 특히, 경제적 자본이나 인적자본과 별개로 사회적 자본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면서, 사회적 자본의 차이가 교육격차를 설명하는 관점으로 이해되고 있다(전현곤, 2011). 실제로 이인자, 한세희와 이희선(2011)은 학생 가정의 사회적 자본, 즉 아동에 대한 신뢰, 기대 또는 관심 등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보다 더 크게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안우환(2009)의 경우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더욱 친밀하고 신뢰성을 가질 때, 그 자녀에 대한 교육에 대한 포부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가져 온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결과적으로 가정의 사회적 자본, 즉 가족 간의 높은 수준의 기대와 신뢰, 부모의 자녀 교육에 관심과 관여가 학생의 교육적 성취에 높은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경제

적 자본과 별개로 학생의 교육적 성취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다(박주호, 2014).

사회적 자본 이외에 축적된 문화자본의 차이에 의해서도 교육격차가 발생된다는 관점이 제시되고 있다(안병영, 김인희, 2009). 구체적으로 개인의 체화된 문화자본, 즉 개인의 성향, 자질, 사고 및 행동방식과 같은 문화자본은 개인이 오랜 시간 동안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습득하기 때문에, 학교교육 기간 등 개인이 성장과정에서 어떤 문화적 경험을 갖는가에 따라 소유하는 자본의 양과 질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즉, 문화자본 이론은 인간이 어떤 문화자본을 얼마나 소유하느냐가 학교에서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가져온다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안병영과 김인희(2009)는 언어에 대한 독해능력, 사람과 의사소통 능력 등이 학교생활을 성공적으로 영위하는 결정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이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성공은 그들이 학령기전에 문화자본을 얼마나 많이 습득 했느냐에 달려 있음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 부모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녀들에게 투자할 경제적 여유, 시간, 지식 및 자원 등에 있어 불리한 처지에 놓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문화자본을 습득할 총체적 여건과 환경이 좋지 못하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들은 낮은 문화자본을 보유하게 되고 학교에서도 불리한 조건하에 학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 학업부진 및 학교교육에 실패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학령기 전 문화자본의 결핍은 추후 학교교육 과정에서 인지적·정의적 발달을 저해하여 학교교육에서 성공이나 교육격차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다는 사실이다(김인희, 2004).

라. 학교특성 요인 관점

전통적으로 교육격차 또는 학업성취 격차의 원인 탐색 연구에서 핵심 쟁점은 그 격차가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 야기되는가, 아니면 학교특성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가에 대한 논쟁이었다(김경근, 2005; 이혜영, 2004). Coleman(1966) 리포트에 의하면, 학생 학업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학교조직 풍토 및 환경이나 교사의 질과 같은 학교 내 특성 요인 차이보다는 학생의 가정배경 차이가 보다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취 또는 교육격차에 다양한 학교특성 요인이 미친 효과 역시 지속적으로 입증되어 왔다. 김양분 외(2010)는 학생 및 학교 배경요인을 통제하고도 학교의 과정적인 노력정도가 학생의 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성기선(2011) 역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도농 간 학생성취도 격차에 학생 및 학교수준의 교육활동 과정변인(예, 학생들의 심리적 변인, 학교 수업분위기, 학교의 학습풍토, 교사의 열의 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박성호(2012)의 경우, 3수준 다층모형을 통해서 도농 간 중학교 학생의 학력격차 분석 결과, 학년이 올라 갈수록 학력격차가 감소했는데 그 감소에 있어, 도시지역 보다 농촌지역에서 높은 학교풍토(예, 교사의 학업 강조 정도와 학생의 수업태도 등의 학업고취 학교풍토, 학생의 교사에 대한 신뢰, 학부모의

교육만족도 등에 의한 공동체적 학교풍토)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교육격차 발생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학교 배경적 요인 이외에 교사특성(예, 교수능력, 교육관, 교육에 열정, 교육적 기대 등)이나 교장특성(예, 리더십 유형, 학교행정 능력, 교사와 학생관계 등), 학교의 조직풍토 등과 같은 학교특성 요인이 그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학교선택에 의한 선발효과 작용으로 인한 학교배경 요인에 의해 교육격차가 발생하다는 관점도 있다. 미국의 경우 학교선택 제도인 차터스쿨 제도(charter school system)에 의한 학력격차 여부를 측정하는 연구가 다수 있어 왔다. 하지만 선발효과를 보유한 차터스쿨이 전통적 일반학교에 비교하여 더 높은 학업성취를 효과를 오저온다는 사실은 현재까지 일률적이지 못하다(Bifulco, Cobb, & Bell, 2009; Judson, 2014). 우리나라의 경우 고교단계에서 과학고와 외국어고 라는 특수목적의 고등학교와 자율형사립고들이 일반 고등학교에 비교해서 우선 선발권을 가지고 학생을 모집 운영하고 있다. 학생 우선 선발권을 가진 과학고 및 외국어고와 일반 고등학교 간에는 학업성취도 격차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이 외고나 과고에 진학하기 때문이다. 일률적이지는 아니하지만, 미국의 차터스쿨이나 우리나라의 특수목적고 선택이 학생의 학업성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마. 종합적 관점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교육격차가 야기되는 이론적 관점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다수 실증연구는 교육격차를 사교육 참여 차이(예, 박현정 외, 2013; 박인용 외, 2015; 성기선, 2010; 임다희, 권기현, 2013; 임의진 외, 2018), 또는 가정의 SES차이(예, 김경근, 2005; 김경근, 연보라, 장희원, 2014; 김주경, 신태섭, 2015; 박명수, 2014; 박찬선, 주경식, 2011; 박현정 외, 2013; 백병부, 김정숙, 2014; 신혜숙, 민병철, 2017)에서 그 실제적 원인을 찾고 있다. 사교육에 대한 투자 차이를 설명하는 가정의 인적 자본투자 관점도 중국에는 가정의 SES에 포함된 가구소득의 차이에 그 근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교육격차는 상당부분 사교육 효과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격차의 원인은 어느 특정한 관점 하나에 의하기 보다는 여러 이론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교육격차의 분석 유형

교육격차를 분석하고 입증하는데 있어서는 그 개념적 의미로 보거나 사용되어 온 유사 용어들에서 보듯이 다양한 교육격차 유형이 존재한다. 우선, 학교교육이 추구하는 목표와

결과를 고려할 때, 인지적 측면의 학업성취 격차와 정의적 차원에서 심리정서 영역에서 성취발달 격차가 있다. 둘째, 다수의 기존 연구들에 의해 접근되어 온 교육격차, 학생의 귀속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여러 교육격차를 준거로 한 지역 간 교육격차(도농 간 교육격차, 또는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단위 간의 교육격차)와 사회계층(부모의 소득, 직업 및 지위, 교육 수준) 차이에 의한 교육격차가 있다. 사회계층에 의한 교육격차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저소득층) 자녀와의 교육격차, 부모의 학력과 (직업)지위에 의한 자녀의 교육격차, 다문화 가족 자녀와 일반 아동 간의 교육격차, 한 부모가정 또는 소년소녀가장 자녀 등 불우한 가족의 자녀와 정상적 가정의 자녀 간의 교육격차를 포함한다. 셋째,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준거로 교육기회의 격차, 교육과정 수준에서 격차, 교육결과 격차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 내 다양한 특성 요인에 의해 야기되는 학교 간 교육격차가 있다.

III. 연구 방법

1. 문헌 검색 및 수집 요건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인지적 차원의 교육격차 실증연구 논문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RISS(<http://www.riss.kr>)에서 검색하고 수집하였다. 구체적으로 문헌 검색은 인지적 차원에서 교육격차를 개념적으로 내포하고 있거나 관련된 주제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 검색을 위한 주제어와 조건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RISS 검색 조건

데이터베이스	탐색 핵심어	탐색 요건
RISS	교육격차, 학업성취도 격차, 학업성취도 차이, 교육불평등, 교육차별, 교육소외	2000년 ~ 2018년

2. 문헌 선정 기준 및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는 우선 위 표 1에서 제시된 주제어 및 기간 조건을 가지고 교육격차와 관련된 논문 검색 결과 총 1930편의 논문이 확인 되었다. 이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기반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와 선정기준에 따라 학업성취 영역에서 교육격차에 해당하는 총 46편의 논문을 선정하였다. 이들 분석 대상 논문을 선정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관심은 초·중등 교육을 대상으로 한 교육격차의 원인 및 그 결과 확인이었다. 따라서 고등교육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격차 논문은 제외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교육격차를 실제 측정하고 분석한 실증논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단순 문헌연구에 의한 탐색적 접근 결과 제시 또는 담론 중심 논문이나 인터뷰 등 질적 데이터 접근에 의한 질적 연구 또는 사례분석 연구, 그리고 국가 간에 교육격차 비교 연구 등은 제외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 논문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 동료리뷰(peer review)를 거쳐 게재된 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 또는 등재 후보지)논문만을 선정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이나 토론회자료, 정책보고서 등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넷째, 교육격차가 개념적으로 집단 간에 차이 비교 준거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 포함된 논문은 학업성취관련 연구에서 명시적으로나 방법론적으로 교육격차를 규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 실증분석 결과 해석 맥락에서 비교집단 간 차이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포함하였다.

IV. 분석 결과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교육실제에서나 이론적 차원에서 핵심적 쟁점으로 제기된 교육격차에 대한 실증연구를 체계적으로 종합정리 해 보았다. 아래에서는 구체적으로 교육격차의 실증연구의 체계적 분석결과를 네 가지 차원- 첫째 교육격차는 개념적으로 어떤 차이를 분석했는가와 세부적으로 어떠한 전공분야에 의해 논의되어 왔고, 둘째 교육격차를 발생시킨 원인, 그 격차를 입증하기 위한 비교집단, 그리고 격차를 입증한 시기(학교급)는 언제이 있는지, 셋째 교육격차는 어느 정도 발생되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격차는 어떠한 분석 자료와 방법을 사용하였는지-으로 분석 정리 하였다.

1. 교육격차의 측정 및 전공분야

가. 교육격차의 측정 영역

본 연구의 자료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0년 이후 2018년 현재까지 우리나라 전문학술지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논의한 인지적 측면의 교육격차는 주로 국어(읽기), 영어, 수학 등의 교과에서 개별 교과목 또는 2개-5개의 교과 성적으로 측정되었다(<표 2> 참조). 이 가운데 국어, 영어, 수학의 3과목 성적을 모두 측정해서 교육격차를 논의 한 경우가 16사

례로서 가장 많았다. 이외에 학교의 중간/기말/모의시험의 석차(5개 사례)나 우수/보통/기초학력미달의 비율(2개 사례)을 가지고 교육격차를 접근하는 경우도 눈에 띄었다.

<표 2> 교육격차의 측정 교과 및 사례 수

국어	영어	수학	영어 수학	국어 영어 수학	국어 수학 과학	국어 영어 사회 과학	중간/기말/모의 시험 석차	교과별 우수/보통/기초 학력미달 비율
2	3	9	6	16	1	2	5	2

나. 전공분야 및 논의 초점

교육격차를 실증적으로 다룬 학문분야의 경우, 당해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육격차는 교육측정 및 평가, 다문화 및 교육사회학, 아동 및 초등교육, 교과교육, 교육행정, 종합·일반 교육학, 청소년 및 사회복지, 기타 등 8개 전공 영역에 의해 논의되고 있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교육격차 실증논문 전체 46편 중 종합·일반 교육학 분야 학술지 15편(32.6%), 그리고 다문화 및 교육사회학 분야 학술지에서 11편(23.91%)이 차지하고 있었다(<표 3> 참조).

전공영역별 교육격차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각 분야별로 일정한 경향성이 나타나는데 교육측정 및 평가 영역에서는 교육격차는 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의한 전국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 따른 학생성적(국어, 수학, 영어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학생배경 요인, 학생 개별적 특성요인, 교사 및 학교배경 요인, 그리고 교수학습 관련 학교 특성 요인의 효과성 확인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다문화를 포함한 교육사회학 분야의 대다수 연구는 주로 각종 패널 데이터(한국교육종단자료, 한국청소년패널자료, 한국교육고용패널자료 등)를 이용해서 학생의 가정소득, 부모의 학력 및 지위 등 가정의 사회경제적배경(SES)과 사교육 투자정도 차이가 교육격차를 발생 시키는 결정적 영향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각 전공영역별 구체적인 논의 초점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교육격차의 논의 전공영역 및 분석 초점

전공영역 (학술지)	저자	논의 초점
다문화 및 교육사회학 (교육문화연구, 교육사회학연구, 다문화교육, 한국사회학)	김경근(2005); 김경근 외(2014); 김위정(2012); 김은정(2007); 남부현, 김연이(2011); 박성호(2012);	대다수 연구는 주로 각종 패널 데이터(한국교육종단자료, 한국청소년패널자료, 한국교육고용패널자료 등)를 이용해서 학생의 가정소득, 부모의 학력 및 지위 등 가정의 사회경제적배경(SES)과 사교육 투자정도 차이가 교육격차를 발생 시키는 결정적 영향 요인임을 확인.

	변수용, 김경근(2008); 성기선(2010); 성기선(2011); 신혜숙, 민병철(2017); 이두휴(2011)	상대적으로 학교 급이 상향(특히 고등학교 수준)될수록 도시와 농촌 간에 교육격차가 존재함을 밝히고 있음. 고등학교시기에 교육격차가 심화되는 이유는 중등학교 이후에 우수 학생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함으로 인한 차별효과임을 제시.
교육측정평가 (교육평가연구)	김성숙 외(2011); 박인용 외(2015); 임의진 외(2018)	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의한 전국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른 학생성적(국어, 수학, 영어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확인. 모두 다양한 학생배경 요인, 학생 개별적 특성 요인, 교사 및 학교배경 요인, 그리고 교수학습 관련 학교특성 요인의 효과성 확인. 관련 요인의 유의성 확인을 기반으로 결과 해석(집단 비교에 의거 차이 존재 경우에 한 함)에 의해 교육격차가 부수적으로 입증.
아동 및 초등교육 (아동교육, 초등수학교육, 한국초등교육)	김성식(2010); 안우환(2006); 이순주(2012)	우선 초등학교 학생만을 대상으로 학업성취(주로 수학교과 성적) 격차를 분석하고 있음. 보다 세부적으로 볼 때, 초등학교 시기의 경우 학업성취 격차의 원인은 거주지(도농 간)차이 보다는 주로 학생의 가정배경(SES)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수학 성적 격차는 다소 적은 것으로 확인. 다만, 학생의 학업성취 격차는 그 학생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긍정적 교육경험 정도에 의해 완화되고 있음을 나타냄.
교과교육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한국실과교육학회지 한국지리환경교육학 회지, 학습자중심교 과교육연구)	김주경, 신태섭 (2015); 박찬선, 주경식 (2011); 정철영, 정진화, 오창환(2011)	다문화 가정배경 또는 저소득층의 자녀가 일반가정 아동에 비교하여 격차가 있음을 입증.
교육행·재정 (교육재정경제연구, 교육행정학연구)	박현정 외(2013); 우명숙(2013); 정동욱 외(2011)	학교 간 교육격차를 접근하고 입증하는 데 그 주안점을 두고 있음. 구체적으로 교육구청별 또는 학교별 교육재정(예, 교육비) 투자의 형평성 정도(불공평 정도), 학교별 보통이상 학생의 학업성취를 성적 지니계수로 전환하여 학교 간 차이, 그리고 재정투입과 학업성취 형평 간의 관계 분석을 통해서 교육격차를 확인하고 있음. 아울러 이들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관련 교육정책 추진을 시사점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임.

<p>종합/일반교육학 (교육과학연구, 교육문제연구, 교육종합연구, 교육학연구, 아시아교육연구, 열린교육연구, 통합교육연구, 한국교육, 한국교육문제연구, 한국교육학연구)</p>	<p>권희경, 신태섭, 이현주 (2013); 김성식(2007); 백병부, 김정숙(2014); 시기자, 이용상, 김인숙 (2013); 성기선(2009); 엄정영 외 (2015); 오성배(2004); 유백산, 김경근(2013); 이유정, 오성배(2016); 이재경 외 (2016); 이주은, 김천기(2016); 정충대(2017); 차성현, 신혜숙, 민병철 (2011); 최필선, 민인식(2010); 허은정, 신철균, 정지선 (2012)</p>	<p>교육학 세부전공(교육사회학, 교육측정 평가, 교육 행·재정 등)분야가 상대적으로 다루지 아니한 영역 에 초점을 두어 교육격차를 분석하고 논의 하고 있음. 또한, 거주지 차이나 가정의 SES가 학업성 취의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있어, 가정의 사회적 자본, 학교 내 사회적 자본(교사 학생 관 계), 또는 학교 공동체적 풍토가 그 격차를 완화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음. 이외에 년도 변화에 따 라 학력격차가 다소 커지고 있고, 고교평준화에 따른 지역 간 교육격차는 없다는 사실도 밝히고 있음</p>
<p>청소년 및 사회복지 (청소년학연구, 한국가족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청소년연구)</p>	<p>강태중(2007); 도종수(2005); 이중섭, 이용교(2009); 정제영, 정예화(2015)</p>	<p>부모의 교육수준이나 도농 간에 교육격차가 존재 하고, 지역 간에 교육격차는 도시지역으로 우수학 생의 이동 효과에 의해 설명되는 등 기존 교육학 전공 영역들에 의한 교육격차 논의와 동일함을 보 여 주고 있음. 다만, 이들 격차 해소를 위해 사회 복지 차원의 지원 대책 제시 맥락이 교육학 영역의 교육격차 논의와 다소 차이가 있음.</p>
<p>기타 (글로벌경영학회, 사회과학연구, 외국학연구, 자연과학, 한국정책과학학회보)</p>	<p>김장민, 김신열(2010); 박명수(2014); 임다희, 권기현(2013); 최희숙, 전정수(2011)</p>	<p>교육학 세부전공(교육사회학, 교육측정 평가, 교육 행·재정 등)들에 의한 교육격차 논의와 동일함을 보여 주고 있음. 즉, 지역사회 취약성, 부모의 사회 적 자본, 가구 소득 등의 차이가 학업성취 격차를 발생시키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음</p>

2. 교육격차의 원인, 비교집단 및 학교급

분석대상 논문에서 나타난 교육격차의 원인 및 비교 준거는 학생의 사교육 참여 정도, 가정배경 변인의 차이, 학교변인의 차이, 거주지 차이 등이었다(<표 4> 참조). 가정배경의 경우 부모의 학력이나 직업, 소득에 따른 가정의 SES 차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적 기

대 및 관심 정도, 다문화 가정 여부, 편부모 여부 등이 비교집단의 준거로 제시되었다. 학교특성의 차이로는 학교수준의 SES 차이, 학교의 교육풍토 및 여건 차이, 설립유형, 목적 유형, 학교규모 등이 교육격차 원인으로 확인되었다. 거주지 차이는 도시와 농촌 지역 또는 지역규모에 따른 대도시·중소도시·읍면지역과 함께 지역수준의 사회자본 차이 등이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교육격차의 원인과 비교집단 준거 가운데 가정의 SES 차이를 교육격차의 원인으로 다룬 사례는 31개, 도시와 농촌 등 거주지역의 차이를 그 원인으로 다룬 경우는 19개 사례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격차 실증 대상인 학교 급에 있어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34개, 고등학교 대상은 33개로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교 대상의 경우 18개, 중학교 및 고등학교 모두를 대상한 경우가 18개, 초중고 전체를 다룬 경우는 16개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경우는 2개 사례에 그치고 있다(<표 4> 참조).

〈표 4〉 교육격차의 원인 및 대상 학교 급 현황

격차원인	격차비교 집단 준거	학교 급						
		초	중	고	초중	중고	초중고	계
사교육 참여	사교육 참여정도 차이	3	3		3	2		11
가정의 SES	부모의 학력/직업/소득 차이	4	14	6	1	3	3	31
부모 자녀 기대 및 지원	부모의 교육적 기대 및 지원 정도	2	6	6		3	2	19
부모 존재 여부	편부모, 양부모 여부	3	2					5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 및 일반 가정	2			1	1		4
학교특성	학교 SES의 차이		2	1		1	1	5
	학교의 교육 풍토 및 여건 차이	2	3	5		2	1	13
	설립유형, 목적유형, 학교규모 차이			3		2	2	7
거주 지역	도시와 농촌지역 (서울/광역시/중소도시/읍면)	3	3	5		3	5	19
	사회자본 차이		1	2				3
기타	교육재정 배분의 형평성 차이	2		2				4
합계		18	34	33	2	18	16	

3. 교육격차 실증 결과

교육격차의 각 원인별 구체적인 실증 결과는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사교육 참여정도, 부모의 학력·직업·소득의 차이, 부모의 교육적 기대 및 지원, 편부모 및 다문화 가정 여부, 학교의 교육적 풍토 및 여건의 차이, 학교의 SES 차이, 학교 설립유형 및 목적유형의 차이, 학교규모의 차이, 도시와 농촌 등 거주지 차이, 거주지역의 사회자본의 차이 등이 학업

성취와 관련한 교육격차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지역 간 교육재정 배분의 형평성 정도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 5〉 교육격차 원인 별 발생 정도

격차 원인	비교 준거	교육격차 실증 결과
사교육 참여 차이	사교육 참여정도 차이	사교육 참여가 학업성취에 정적 효과, 즉 교육격차 유발 (박현정 외, 2013; 박인용 외, 2015; 성기선, 2010; 임다희, 권기현, 2013; 임의진 외, 2018)
가정의 SES 차이	부/모의 학력/직업/소득 차이	전반적으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영향, 즉 교육격차를 유발(김경근, 2005; 김경근 외, 2014; 김주경, 신태섭, 2015; 박명수, 2014; 박찬선, 주경식, 2011; 박현정 외, 2013; 백병부, 김정숙, 2014; 신혜숙, 민병철, 2017; 유백산, 김경근, 2013; 이유정, 오성배, 2016; 이재경 외, 2016; 이중섭, 이용교, 2009; 임다희, 권기현, 2013; 최희숙, 전정수, 2011) 2000년-2009년 사이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력 정도가 더 커지고 계층 간 학력격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그 차이는 상위계층의 성적이 더 크게 향상에서 비롯됨(김위정, 2012), 중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부의 학력과 부의 직업효과가 지난 20년 동안 1.7-3.5배 증가(성기선, 2010) 특히,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부모-자녀 관계의 양상이 차이가 나고 중국에 자녀의 학업성취에 격차를 유발(김은정, 2007)
부모의 기대와 지원 차이	부모의 교육적 기대 및 지원 차이	부모의 자녀교육기대 수준, 교육적 관여,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 등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김경근, 2005; 김경근 외, 2014; 신혜숙, 민병철, 2017; 유백산, 김경근, 2013; 이유정, 오성배, 2016; 임다희, 권기현, 2013; 정제영, 정예화, 2015; 최희숙, 전정수, 2011). 한편, 부모의 학교활동참가는 자녀의 국,영,수 학업성취를 어느 정도 향상시키지만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서면 오히려 역효과가 있음(변수용, 김경근, 2008)
	부모의 존재(편부모, 양부모) 여부	학업성취도에 대해 한부모 가정 여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신혜숙, 민병철, 2017; 이유정, 오성배, 2016)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 및 일반 가정	다문화 학생들의 경우도 가정과 부모변인에 따라 학업성취도에 차이가 발생(남부현, 김연이, 2011)

	학교 SES의 차이	학교의 평균 SES가 학업성취도 차이 유발(김경근 외, 2014; 김성식, 2010; 백병부, 김정숙, 2014)
학교 특성	학교의 교육적 풍토 및 여건 차이	2000년에서 2009년 사이 계층 간 학력격차에 분권화 또는 학교운영 자율성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김위정, 2012). 학생풍토/학부모 관심이 학교 간 학업성취에 차이를 발생시킴(김성숙 외, 2011; 박인용 외, 2015). 학업성취를 강조하는 학교일수록 학업성취 수준이 높음 (김성식, 2007), 또한 교사의 학생성취 기대도 학업성취 차이에 영향을 미침 (김경근 외, 2014; 김성식, 2010). 특히, 교사-학생 관계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소(백병부, 김정숙, 2014). 전반적으로 학교환경(교육여건)이 교육격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임다희, 권기현, 2013), 다만 전반적으로 볼 때 그 영향력은 크지 않음(시기자 외, 2013).
	설립유형, 목적유형, 학교규모 차이	고등학교의 경우 설립유형 또는 목적유형(특목고, 자사고)에 따라 초기 학업성취도와 변화율에 차이가 있음 (김경근 외, 2014; 박인용 외, 2015; 박현정, 김혜지, 2013; 이재경 외, 2016; 임의진 외, 2018). 이외에 국공립과 사립, 신설학교와 기존학교, 학교규모에 따른 학교 간에 교육격차 존재 (허은정 외, 2012).
거주 지역 차이	도시와 농촌지역 (서울/광역시/중소도시/읍면)	학생들의 평균 학업성취의 경우 도시 지역에 비해 농어촌(읍면)지역이 낮음(강태중, 2007; 김경근, 2005; 김성숙 외, 2011; 도종수, 2005; 박인용 외, 2015; 이순주, 2012; 이유정, 오성배, 2016). 또한, 서울과 광역시 지역이 여타 지역에 비해 저성취 학교 비율이 낮음(허은정 외, 2012). 지역 간 학력격차는 시간변화에 따라 감소하며, 도농 간에 초기 학력격차의 원인으로 학생SES가 작용(박성호, 2012; 성기선, 2011; 최필선, 민인식, 2010). 특히, 도시에서는 성적우수자의 비중이 늘어나는데 비해, 농촌에서는 기준미달자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이두휴, 2011). 전반적으로 초·중 학교는 부모학력/소득의 성적차이 효과는 있으나 지역단위 성적차이 효과는 없으며,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도농 간에 학업성취에 차이 증가, 특히 고등학교 경우 지역 간(도농 간) 학업 성취 차이는 우수학생이 도시로 이동 결과에서 비롯됨 (강태중, 2007; 성기선, 2011; 오성배, 2004). 도·농간의 교육격차는 도·농이라는 단순 거주지 차이에서 발생하는 격차이기 보다는 상당부분 개인의 가정배경(부모의 교육기대, 사교육투자 여부)에서 기인하고 있음(정철영 외, 2011) 즉 읍면지역 거주자의 학업성취에 부정적 영향력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가정 내 사회적 자본 하위 변인을 동시에 투입하는 경우 그 유의미성은 사라짐 (이유정, 오성배, 2016)
	사회자본 차이	학업성취 차이에 지역 사회자본 및 가족 사회자본이 영향을 미침 (김장민, 김신열, 2010)
기타	교육재정 배분의 차이	서울시 자치구별 학교 간 학업성취도 격차의 경우 부유한 지역에서 더 높게 나타남(우명숙, 2013). 또한 학교 간 교육비 배분이 불평등 하면 할수록 교육지원청 기준으로 보통학력이상 학생비율이 더 낮음. 또한 학교 간 교육비 배분이 불공평하게 이루어 질 경우도 학교 간 학업성취 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정동욱 외, 2011)

4. 교육격차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교육격차의 검증을 위해서 활용된 자료 가운데 교육종단연구 자료를 이용한 논문이 15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단위 표준화 시험 성적 활용 논문 9편,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점수 활용 논문 5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 활용 논문 4편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표 6> 참조).

〈표 6〉 교육격차 검증을 위한 활용자료

구분	논문 편수	비고
교육종단연구 자료	15	서울교육종단연구 4편, 경기교육종단연구 4편, 한국교육종단연구 7편 포함
한국교육고용패널 데이터	2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	4	—
PISA 데이터	3	—
설문지조사 자료	2	—
학교정보공시자료	1	—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점수	5	—
대학수학능력시험점수	2	—
고교입학연합고사 성적	1	—
중졸검정고시성적	1	—
지역단위 표준화 시험 성적	9	도 단위 또는 지역 단위 시험
학교단위 시험성적	1	—

교육격차 검증을 확인한 자료 분석방법의 경우, 집단 간의 평균차이 분석과 공변수를 통제한 회귀분석에 의해 접근한 사례가 16개로 가장 많았으며, 위계적 모형 분석(HLM) 14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7개 순이었다. 이외에도 Oaxaca-Blinder 분석방법을 적용한 사례도 2개가 있었다(<표 7> 참조).

〈표 7〉 교육격차 분석방법

분석방법	두 집단 평균차이분석 (t검정, F검정)	회귀분석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HLM)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Oaxaca- Blinder 분석
논문편수	16편	16편	14편	7편	2편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최근까지 교육격차를 학술적으로 접근한 분야는 다문화 및 교육사회학, 교육측정 평가, 교육행·재정, 아동 및 초등교육, 교육학 일반, 청소년 및 사회복지 등 8개 세부전공 분야로 나타났다. 모든 전공영역에서 나타난 공통점은 교육격차의 원인을 학생의 가정배경인 SES차이와 거주지 차이임을 입증해 보이고 있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사실은 전통적으로 학교교육효과 연구(예, Coleman, 1966)가 지적했듯이, 학업성취 면에서 교육격차가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사교육 참여정도, 부모의 교육적 기대 및 지원 차이가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론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격차가 가정의 인적자본투자 관점(Becker & Tomes, 1986; Eamon, 2002; Guo & Harris, 2000)이나 가구소득에 의한 가족과정 모델 관점(Conger et al., 1997; Yeung et al., 2002)에 의해 잘 설명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가족의 소득차이가 자녀교육 투자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가정의 낮은 소득의 상황은 해당 부모와 자녀와의 상호작용 관계 능력을 떨어뜨리고, 그 결과 자녀의 학성취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주목할 점 중 하나는 학교의 교육풍토나 학교 내 사회적 자본(예, 교사-학생 관계) 차이가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한 교육격차를 감소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한다는 사실이다(박성호, 2012; 백병부, 김정숙, 2014). 이는 우리나라 학교교육에서 학교가 학생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처방적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 향후 우리의 학교행정가나 교사들이 교육 형평성 기반의 적절한 교육철학을 견지하고 교육여건이 취약한 학생에게 보다 배려 깊은 교육적 기대와 관계성을 견고히 할 때, 작금에 심화되고 있는 교육격차 문제는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결과는 전체46편 연구 중 22편(47.8%)이 지역거주 차이를 교육격차의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격차 관련해서 하나의 핵심이슈가 학생 거주지임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도농 간의 교육격차 입증 연구의 경우, 부모 소득이나 가정배경 변인 또는 학교특성 요인을 통제하는 경우 그 격차가 사라지는 결과(성기선, 2011; 정철영 외, 2011)가 나타나거나, 초중학교 때에는 도농 간 격차가 미약하고 없었으나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경우 그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도 발생(강태중, 2007; 성기선, 2011; 오성배, 2004)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격차의 원인이 단순히 학생이 도시에 거주하느냐, 아니면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산어촌에 거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오성배(2004)와 이두휴(2011)는 농어촌 거주 우수학생이 학교 급이 올라감에 따라 도시로 이동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차별효과임을 주장한다. 아무튼 분명한 사실은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도농 간에 교육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농 간 교육격차를 만든 근본적인 원인은 어느 정도 도농 간의 교육여건이나 물리적 학교환경 차이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을 도시지역으로 물리게 만드는 현행 우리나라 학교유형 제도에 그 원인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즉 과학고, 외국어고 등 우수학생이 입학하기를 원하는 학교가 거의 대부분 도시지역에 소재하고 있음이 이를 간접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농산어촌 소재 초중학교 출신 학생이 외국어고 및 과학고로 진학하거나 도시의 우수고교로 진학하게 되어, 도농 간의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지난 20여년에 걸쳐 수행된 교육격차 실증연구 결과를 놓고 볼 때, 우리사회의 경우 ‘공정성 기반의 교육 형평성’(OECD, 2016)* 약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향후 교육정책에 의해 해소할 핵심적 과제임을 제시해 주고 있다. 향후 정부당국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SES) 차이로 인해 파생되는 교육격차의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다문화 학생 등 교육성취의 취약 계층에 개별적인 맞춤형 교육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개발할 당위성을 가진다. 이에 더하여 교육격차 문제를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 및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전국단위 교육격차 측정자료 구축에 더 많은 재정투자와 실증연구 지원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교육격차에 대한 분석을 인지적 측면의 학업성취에 국한하였으나, 학교교육의 성과가 인지적 측면만이 아니라, 정의적 차원에서 자기존중감, 학업탄력성, 교과에 대한 태도나 자신감, 학습몰입과 같은 비인지적 영역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까지 포괄하는 교육격차 분석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을 제언한다. 특히, 후속연구로서 교육격차에 대한 원인 별 그 차이를 종합적으로 증명하는 메타분석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 OECD는 교육에서 형평성(equity)을 공정성 기반의 형평성(equity as fairness)과 포괄성 기반의 형평성(equity as inclusion)을 구분해서 정의하고 있다. 공정성 기반의 교육 형평성이란 성, 인종, 또는 가정배경 같은 개인적 또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학교교육에서 성공의 장애로 작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포괄성 기반의 교육 형평성이란 모든 학생들이 적어도 최소한 기초적 수준의 기능에 도달함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공정성으로 교육 형평성이 높다는 것은 학교교육 성과인 학업성취 결과에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이 적게 나타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참 고 문 헌

- 강태중(2007). 학업성취도의 지역 차이 분석: 인구 이동의 영향을 고려한 시도. **한국청소년 연구**, 18(2), 315-344.
- 곽수란(2006). 인문계 학생의 학업성취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6(2), 1-29.
- 권희경, 신태섭, 이현주(2013). 인지적 활동 유형에 따른 학업성취도 차이. **아시아교육연구**, 14(4), 23-48.
- 구병두, 김수옥(2014). 학업성취에 교사 관련 변인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타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6(4), 33-59.
- 구인회, 박현선, 정익중(2006). 빈곤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아동권리연구**, 10(3), 269-295.
- 김광혁(2011). 빈곤이 청소년의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전주시 교육복지사업참여 중 학교의 학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총**, 26(2), 77-92.
- 김경근(2005). 한국사회 교육격차의 실태 및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5(3), 1-27.
- 김경근, 연보라, 장희원(2014). 서울시 중고등학생의 학업성취 영향요인 및 그 함의. **교육사회학연구**, 24(4), 1-29.
- 김경식, 이현철(2010).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부모, 교사, 교우관계와 학업성취간의 종단적 관계 분석. **중등교육연구**, 58(1), 203-225.
- 김미숙, 배화옥(2007). 한국 아동빈곤율 수준과 아동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보건사회연구**, 27(1), 3-26.
- 김민희(2017). 교육격차 개선 방안: 연구동향 분석을 중심으로.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7(11), 377-385.
- 김병성(2003). 우등생과 열등생 차이, 그 오래된 의문점: 교육격차의 의미·배경·인과론. **교육개발**, 30(3), 20-25.
- 김선숙, 고미선(2007). 청소년의 학업성취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잠재성성장모형을 적용하여. **한국청소년연구**, 18(3), 5-29.
- 김성숙, 송미영, 김준엽, 이현숙(201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지역간 학력 차이에 따른 초·중·고 학교특성 분석. **교육평가연구**, 24(1), 51-72.
- 김성식(2007). 중학교 학생의 학업성취에 대한 학교 풍토 변수의 영향 분석. **한국교육**, 34(2), 27-49.
- 김성식(2010). 초등학교 학생의 학업 성취에 대한 학교 효과 분석: 평균 향상과 격차 완화의 두 측면에서. **서울교육대학교 한국초등교육**, 21(2), 45-60.
- 김양분, 김난옥(2015).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및 학교변인 탐색. **교육학연구**,

- 53(3), 31-60.
- 김양분, 이재경, 임현정, 신혜숙(2010). 학력격차 변화 추이 및 해소 방안 연구(RR 2010-25).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영철(2011). 고등교육 진학단계에서의 기회형평성 제고 방안(정책연구시리즈 2011-06).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위정(2012). 계층간 학력 격차의 변화: 학교정책의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2(3), 49-76.
- 김은정(2007).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사교육비, 부모-자녀 관계 그리고 청소년 자녀의 학업성취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41(5), 134-162.
- 김인희(2004). 교육복지 정책의 성공조건과 정책 사례. 중앙일보 교육포럼 발표논문.
- 김장민, 김신열(2010). 지역사회 취약성, 지역사회자본 및 가족사회자본이 청소년의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사회과학연구**, 26(3), 153-174.
- 김정원, 김성식, 김원경, 김홍원, 김홍주, 문무경, 박효정, 이병환, 이선희, 이재분, 임연기, 정영식, 최상덕, 최정윤, 한만길(2008). 교육복지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CR 2008-43).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종백, 김준엽(2014). 교사와 학생의 교사-학생 관계 지각이 수업이해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연구**, 31(3), 245-267.
- 김주경, 신태섭(2015). 중학생의 인지전략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저소득층과 일반 가정 청소년 비교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7), 383-401.
- 김현진(2007). 가정배경과 학교교육 그리고 사교육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5(4), 485-508.
- 김희삼(2012). 학업성취도 분석을 통한 초·중등교육의 개선방향 연구(연구보고서 2012-09).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남부현, 김연이(2011).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학생의 학업성취도 격차 연구. **다문화교육**, 2(3), 19-57.
- 도종수(2005). 학업성취 관련변인의 지역격차 실태와 대책. **청소년학연구**, 12(4), 305-334.
- 류방란, 송혜정(2010). 초·중학생의 학업 성취수준에 미치는 가정과 학교경험의 영향력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0(3), 1-25.
- 박명수(2014). 영어교육격차의 원인 분석. **외국학연구**, 27, 35-60.
- 박성호(2012). 도농 간 중학생 학력격차 감소에 미치는 학교교육의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22(1), 77-108.
- 박인용, 김성은, 구슬기, 김완수(2015). 학교 학업성취 연도별 변화에 미치는 교육맥락 변

- 인 분석. **교육평가연구**, 28(5), 1447-1471.
- 박주호(2014). **교육복지의 논의: 쟁점, 과제 및 전망**. 서울: 박영사.
- 박찬선, 주경식(2011).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의 분포 특성.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9(2), 53-68.
- 박현정, 길혜지(2013). EBS 수능강의 수강이 교육격차 감소와 학교수업태도 향상에 미치는 효과 분석. **교육평가연구**, 26(5), 1115-1141.
- 박현정, 정동욱, 이진실, 박민호, 조성경(2013). 서울시 초·중등교육의 교육격차 구조요인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1(4), 149-174.
- 백병부, 김정숙(2014). 학교내 사회자본이 학업성취 격차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52(1), 221-249.
- 변수용, 김경근(2011). 사립학교의 효과성. **교육사회학연구**, 21(1), 77-109.
- 변수용, 김경근(2008). 부모의 교육적 관여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가정배경의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18(1), 39-66.
- 성기선(2009). 평준화지역과 비평준화지역 고등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격차와 변화에 대한 분석연구: 경기도지역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국교육**, 36(4), 171-195.
- 성기선(2010). 중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가정배경의 영향력 변화에 관한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20(3), 88-103.
- 성기선(2011). 학교급별 도농간 학업성취도 격차에 관한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21(4), 125-148.
- 성기선, 박철희, 양길석, 류방란, 강영식, 한송이(2009). 농산어촌 교육 실태 분석 및 교육 복지 방안 연구: 고등학교(RR 2009-11).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시기자, 이용상, 김인숙(2013). 국가영어능력평가지험에 나타난 영어 학력 격차 설명 요인 분석. **교육과학연구**, 44(3), 19-47.
- 신혜숙, 민병철(2017). 가정배경, 부모 교육관여 및 학업성취도의 구조적 관계. **교육 문화 연구**, 23(6(B)), 535-556.
- 안병영, 김인희(2009). **교육복지정책론**. 서울: 다산출판사.
- 안우환(2006). 지역에 따른 학업성취도 격차의 원인 탐색. **아동교육**, 15(2), 319-329.
- 안우환(2009). 부모-자녀 관계 사회적 자본과 교육포부 수준과의 관계: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중등교육연구**, 57(1), 1-20.
- 엄정영, 김영길, 전옥례(2015).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교육문제연구**, 21(1), 106-131.
- 오성배(2004). 지역간 학업성취도 격차 원인 분석: 지역 효과와 학생이동의 영향 탐색. **한국교육**, 31(2), 169-192.

- 오성배(2005). 코시안의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교육**, 32(3), 61-83.
- 오성삼, 구병두(1999). 메타분석을 통한 한국형 학업성취 관련변인의 탐색. **교육학연구**, 37(4), 99-122.
- 우명숙(2013). 서울시 중학교의 단위학교 및 자치구 수준에서의 교육격차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2(4), 55-83.
- 유백산, 김경근(2013). 가정배경, 가정 내 의사소통 방식, 학업성취 간 구조적 관계. **교육학연구**, 51(3), 1-33.
- 이두휴(2011). 도시와 농촌간 교육양극화 실태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1(2), 121-148.
- 이순주(2012). 초등학교 수학 학업성취에서의 성별 거주지역별 차이. **초등수학교육**, 15(3), 177-187.
- 이유정, 오성배(2016). 지역 간 학업성취도 격차 실태 완화 및 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교육문제연구**, 34(1), 93-114.
- 이인자, 한세희, 이희선(2011). 사회자본이 교육성과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교육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0(1), 179-212.
- 이재경, 김양분, 신혜진(2016). 학력격차의 변화 추세와 해소 방안. **한국교육**, 43(1), 261-286.
- 이재훈, 김경근(2007). 가족 및 학교 내 사회자본과 학업성취. **한국교육학연구**, 13(2), 175-208.
- 이주은, 김천기(2016). 초등학생의 학교 내 사회자본,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 영어성취의 구조적 관계. **교육종합연구**, 14(3), 29-54.
- 이중섭, 이용교(2009). 부모의 교육수준이 자녀의 학업성취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한국가족복지학**, 26, 159-192.
- 이혜영(2004).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학교와 타 지역 학교의 교육격차 분석 연구(CR 2004-10).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희숙, 정제영, 선미숙(2016). 교육자원 투입에 따른 청소년의 학업성취 효과에 대한 메타적 접근: 교사변인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3(4), 425-450.
- 임다희, 권기현(2013). 인적자본·동기부여·교육복지 이론을 통한 교육격차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순서화 로짓 모형(Ordered Logit Model)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7(1), 185-213.
- 임성택, 강승호(2003). 도시-농촌간 학력격차 통제변인 탐색. **교육학연구**, 41(3), 399-422.
- 임의진, 박인용, 정혜경, 서민희, 김완수, 한정아(2018).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기반한 고등학생 학업성취도 영향요인 및 격차 탐색. **교육평가연구**, 31(1),

125-153.

- 임현정(2010). 초등학생의 학습부진에 대한 학생 및 학교수준의 결정요인 탐색. **교육평가연구**, 23(1), 191-216.
- 장희원, 김정근(2015). 서울시 중고등학생의 학업성취 영향요인에 대한 중단분석. **한국교육학연구**, 21(3), 175-196.
- 전현곤(2011). 교육학에서의 사회자본 논의에 대한 비판적 탐색: 가정의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17(3), 151-174
- 정동욱, 김영식, 우윤미, 한유경(2011). 지역교육지원청 내 단위학교 간 교육자원 배분과 학업성취 간의 관계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0(4), 189-215.
- 정제영, 정예화(2015). 부모의 교육적 관여 수준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2(7), 73-93.
- 정철영, 정진화, 오창환(2011). 도·농간 교육격차에 관한 가정 및 학교배경의 효과 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3(1), 27-49.
- 정충대(2017). 도농 학업성취도 격차의 시계열적 추세와 원인 분석. **교육종합연구**, 15(3), 117-137.
- 조희원, 박성연, 지연경(2011). 아동의 기질 및 주장적 행동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2(6), 1-18.
- 차성현, 신혜숙, 민병철(2011). 학력향상중점학교와 일반학교의 학업성취도 '차이'를 설명하는 학생 및 학교 특성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2(4), 335-356.
- 최필선, 민인식(2010). 지역 간 학업성취도 격차의 원인분석: Oaxaca 분해를 이용. **교육문제연구**, 36, 161-181.
- 최희숙, 전정수(2011). 부모·친척의 사회자본이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경영학회**, 2011(1), 1-30.
- 표경선, 안도희(2006).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완벽주의, 성취목적, 부모 양육방식 및 학업성취간의 관계 모형. **아동교육**, 15(2), 211-227.
- 허은정, 신철균, 정지선(2012).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격차 실태 및 특성 분석. **열린 교육연구**, 20(1), 141-164.
- Becker, G. S., & Tomes, N. (1986). Human capital and the rise and fall of families. *Journal of Labor Economics*, 4(3), 1-39.
- Bifulco, R., Cobb, C. D., & Bell, C. (2009). Can interdistrict choice boost student achievement? The case of Connecticut's interdistrict magnet school program.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31(4), 323-345.
-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Richardson, J.G.(Ed.), *Handbook of*

-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NY: Greenwood Press Inc.
- Eamon, M. K. (2002). Effects of poverty on mathematics and reading achievement of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2(1), 49-74.
- Coleman, J. S. (1966). The concept of equality of education opportunity. *Harvard Education Review*, 38(1), 37-77.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95-S120.
- Conger, R. D., Conger, K. J., & Elder, G. H. (1997). Family economic hardship and adolescent adjustment: mediating and moderating processes. In G. J. Duncan & J. Brooks-Gunn (Eds.),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pp. 288-310).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Guo, G., & Harris, K. M. (2000). The mechanisms mediating the effects of poverty on children's intellectual development. *Demography*, 37(4), 431-447.
- Judson, E. (2014). Effects of transferring to STEM-focused charter and magnet schools on student achievement.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07, 255-266.
- Lee, V. E., & Croninger, R. G. (1996). *Social capital and children's development: The case of education* (ED 412-629).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6). *PISA 2015 results (vol. I): Excellence and equity in education* (OECD).
- Putnam, R., Leonardi, R., & Nanetti, R.Y. (2000).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Making democracy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안청시, 장훈, 강원택, 김학노, 김하영, 유석진 역). 서울: 박영사.
- Schultz, T. W. (1961). Investment in human capital.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51(1), 1-17.
- Yeung, W. J., Linver, M. R., & Brooks-Gunn, J. (2002). How money matters for young children's development: Parental investment and family processes. *Children Development*, 73, 1861-1879.

ABSTRACT

The Systemic Analysis of the Empirical Studies Measuring the Educational Gap

Joo-Ho Park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Jong-Myun Baik (Professor,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rehensively and systematically examine the educational gap through an empirical research study, which was published from 2000 to 2018. Over fifty articles in the study empirically dealt with educational gaps which have been searched from RISS of KERIS. The data was analyzed by applying a systemic analysis metho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first of all, the current educational gap in our country has been discussed and reported in eight academic fields. In order to measure educational gaps, academic achievement was assessed and analyzed by the related studies. Secondly, the root cause of educational gaps consist of eight factors such as participation time in private tutoring, student's home SES, different geographical areas, parents' educational expectation and involvement, and school characteristics. Third, students' SES played a critical role contributing to their educational gap. In addition, the educational gap among geographical areas also stemmed mainly from students' SES. The educational gap in different geographical areas appeared markedly when the high achieving students move to schools in metro areas during their high school years. Fourth, the effect of school characteristics on the educational gap was overall trivial, but a school's educational environment and socioeconomic level has contributed to reduce the educational gap more than the students' SES. The implication of the study provides a better understanding about the degree of the current educational gap and future research agenda for educational policy makers and researchers.

Key words: educational gap, academic achievement, students' SES, difference of residential area